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附設

東亞文化研究所 紹介

一. 創 立

서울大學校가 設立된 以來 國學 및 東洋學研究에 從事하는 教授들의 個人業績은 不備한 條件下에서도 刮目하리만큼 發展하여 왔다. 그러나 個人的 力量을 集結시키고 協同的 研究를 進展시키는데 必要한 機關이 없어 研究上의 不便이 적지 않았다. 이를 止揚하기 爲하여 東洋學 및 國學研究를 爲한 研究所의 設置가 時急히 要請된다는 關係教授間의 輿論이 일어나 마침내 1961年 1月 27日 文理科大學 教授會議室에서 國學 및 東洋學研究所의 發起會를 갖기에 이르렀다.

金庠基教授를 비롯한 14名의 教授들로 이루어진 發起會에서는 國學 및 東洋學 全分野를 網羅하는 研究所를 設立할 것과 所屬學科에 拘碍됨이 없이 實際로 研究하고 있는 分野를 基準으로 하여 個人資格으로 이에 參與할 수 있도록 하는 點에 合意하고 곧 創立總會로 들어갔다.

創立總會에서는 研究所의 名稱을 東亞文化研究所(英文: The Institute of Asian Studies)로 決定하고 全文 七章·十七條·附則으로 이루어진 規程을 通過시켰다. 이어 所務의 執行을 爲한 任員으로 所長에 李相佰, 幹事に 鄭炳昱·韓沽勳, 監事に 李崇寧을 各各 選出하였다.

이와 같이 私設機關으로 創立된 本 研究所는 數多한 障礙를 헤치며 下記할바 (四. 活動 參照)와 같은 活動을 이룩하여 온 結果, 1963年 7月 1日에 서울大學校側과 本 研究所와의 合意下에 文理科大學의 附設研究所로 發足하게 되었고 本 研究所의 規程을 如下히 改定하게 되었다.

이로써 本 研究所는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附設 東亞文化研究所(英文:

The Institute of Asian Studies,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로 改稱・發足되었다.

二. 規 程

제 1 조 본 연구소는 서울대학교 부설 동양문화연구소라 정하고 문리과 대학 내에 둔다.

제 2 조 본 연구소는 한국문화를 기축으로 하는 동양문화를 연구하며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세계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 연구소에 소장,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두는 외에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연구원은 본교의 동양문화 부문에 종사하는 전임강사이상 중에서, 보조연구원은 조교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특별연구원은 동양문화를 연구하며 본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고 연구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의 인사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한다.

제 4 조 소장은 연구원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자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중임할 수 있다.

제 5 조 본 연구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한국문화를 기축으로 하는 동양문화의 연구.
2. 연구자료의 수집 및 정비.
3. 연구성과 및 연구자료의 간행.
4. 소보의 간행.
5. 연구발표회, 공개강좌 및 학술토론회의 개최.
6. 타연구기관 및 학회와의 연구상의 협력.
7. 기타 본 연구소 목적에 수반하는 사업.

제 6 조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연구원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한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중임할 수 있다. 본 연구소 소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 7 조 운영위원회 상임위원 약간명과 대표상임위원 한명을 둔다.

상임위원은 운영위원회 제청으로 학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상임위원은 본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소장의 자문에 응하며 대표상임위원은 소장 유고시에 소무를 대행한다.

제 8 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2.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0 조 본 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이 정한다.

제 11 조 본 규정은 196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三. 所 員

1963年 7月 1日 現在 本 研究所 所員은 다음과 같다(가나다順).

特別研究員

金祥基(Kim Sang-ki) : 名譽教授, 東洋史·韓國史學專攻, 文學博士.

朴鐘鴻(Park Chong-hong) : 教授(大學院長), 哲學·韓國思想專攻, 哲學博士.

李熙昇(Lee Hi-seung)：名譽教授，韓國語・韓國文學專攻，文學博士。

崔文煥(Choi Moon-hwan)：教授(商科大學長)，社會・經濟學專攻，經濟學博士。

研究員

高柄翊(Koh Byong-ik)：副教授，東洋史學專攻，Ph. D.

金芳漢(Kim Bang-han)：副教授，言語學專攻。

金成煥(Kim Seung-hwi)：教授，政治學專攻。

金元龍(Kim Won-yong)：教授，考古學專攻，Ph. D.

朴俊圭(Park Jyoon-kyoo)：副教授，國際政治學專攻。

柳洪烈(Ryu Hong-ryul)：教授，韓國史學專攻，文學博士。

李基文(Lee Ki-moon)：副教授，韓國語學專攻。

李萬甲(Lee Man-kap)：教授，社會學專攻。

李相佶(Lee Sang-beck)：教授，社會・韓國史學專攻，文學博士。

李崇寧(Lee Soong-nyung)：教授，韓國語學專攻，文學博士。

李海英(Lee Hai-young)：副教授，社會學專攻。

張基權(Chang Ki-keun)：副教授，中國語・文學專攻，

張德順(Chang Duk-soon)：專任講師，韓國文學專攻。

全光鏞(Chun Kwang-yong)：副教授，韓國文學專攻。

全海宗(Chun Hae-jong)：教授，東洋史學專攻。

鄭炳昱(Chung Byong-uk)：副教授，韓國文學專攻。

車柱環(Cha Chu-hwan)：副教授，中國語・文學專攻。

韓祐勳(Han Woo-keun) 教授，韓國史學專攻。

許 雄(Huh Woong)：副教授，言語學專攻。

補助研究員

孔在錫(Kong Jae-suk)：助教，中國語・文學專攻。

權錫奉(Kwon Sok-bong) 助教，東洋史學專攻。

金鐘元(Kim Chong-won)：東洋史學專攻.

鄭昌烈(Chung Chang-ryul)：國史學專攻.

崔承熙(Chai Sung-hi)：國史學專攻.

河正玉(Ha Chong-ok)：中國語・文學專攻.

韓榮國(Han Young-kook)：助教，國史學專攻.

四. 活 動

1961年 2月부터 1963年 6月까지 本 研究所에서 行한 事業을 部門別로 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公開學術講座

第一回：1961年 8月 27日~29日，於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第七・八 講義室.

8月27日

韓祐勳：白湖 尹翊 研究 (司會 柳洪烈)

資料紹介，生涯와 學風，經世家로서의 白湖. (歷史學報 第15・16・19 冊 參照)

李海英：韓國人の 出産力の 一考察 (司會 金成燾)

出産力調査方法，資料蒐集의 經緯 및 實態，앞으로의 展望. (本 論文集 參照)

李崇寧：國語史의 方法論 (司會 李熙昇)

國語史研究의 態度 및 時代區分論，古代語의 再構，中期語 및 近代語問題.

張基權：中國語統辭論의 基本問題 (司會 車柱環)

詞의 結合과 그 方式，文章構成의 要素，各論.

8月28日

金芳漢：Altai 語에 있어서의 補充法 (司會 李崇寧)

補充法의 本質，알타이語에 있어서의 補充法——특히 數詞와 人稱代名詞에서——. (本 論文集 參照)

李萬甲：韓國新聞小說에 나타난 人間關係와 價値觀 (司會 李相佰)
問題點(價値研究의 必要性), 方法, 研究結果.

鄭炳昱：靑山別曲의 文學的 分析 (司會 全光鏞)
語學的 注釋, 構成과 그 分析, 別曲은 俗謠인가?

李基白：韓國의 事大主義와 獨立精神에 關하여 (司會 朴鍾鴻)
半島의 性格論과 事大主義, 事大主義와 排他主義의 對內的 意義, 文化적인 面에서의 對外關係.

8 月 29 日

許 雄：李朝初期의 尊待法과 그 變遷 (司會 金芳漢)
李朝初期의 세 가지 尊待法에 對한 已往의 論說에 對한 若干의 修正.

全海宗：韓中關係의 一考察——高宗 18·19年의 遣中使節의 關하여
—— (司會 韓祐勳)

使節의 任務, 滯中時의 活動, 結果.

全光鏞：長恨夢考 (司會 鄭炳昱)

翻譯과 翻案과 創作, “金色夜叉”와 “長恨夢”, 新聞小說로서의 長恨夢.

車柱環：高麗史樂志所載唐樂考 (司會 金庠基)

唐樂의 含義와 輸入年代, 麗志에 載錄되지 않은 高麗唐樂, 各論.

第二回：1962年 12月 22日, 於 서울大校文理科大學 第六·七講義室.

金元龍：韓國史前文化의 新資料들 (司會 李相佰)

楊州郡水石里와 春川 校洞의 石器文化를 中心으로 考察한 漢江流域石器文化의 새로운 一面.

許 雄：人稱語尾로서의 “오~우” (司會 李熙昇)

“오~우”가 用言의 語尾에 連結되는 경우 이를 意圖說로 解釋하는데 對하여 一人稱語尾로 解釋하여야 한다는 考察이다.

韓祐勳：Shufeldt의 韓美修好條約締結 推進緣由에 對하여 (司會 柳洪烈)

Shufeldt가 韓美修好條約의 締結을 強力히 推進시킨 緣由를 美國內의 社會·經濟問題에 中心하고 이에 國際政治上의 理由를 아울러서 考察하였다. (震檀學報 第24輯 參照).

李基文：日本語의 系統에 對하여 (司會 金芳漢)

朝鮮學報 第27輯(1963年 4月)의 “A Genetic View on Japanese” 參照.

金芳漢：原始國語母音體系的變動에 관하여 (司會 許 雄)

原始國語에서 李朝初期에 이르는 國語母音體系的變動을 考察하였다.

車柱環：陶潛詩와 應璩詩의 關係 (司會 金庠基)

陶潛詩와 應璩詩와의 類似點을 實例를 들어 鐘嶸이 詩品에서 말한
마 陶潛詩가 應璩詩에서 나왔다는 點이 根據가 있음을 考察하였다.

朴俊圭：韓末外交論 (司會 金成禧)

1880年代의 美·露의 對韓政策에 對한 再檢討와 諸見解를 批判하였다.

張基權：五四期小說論 (司會 全海宗)

中國文學의 精神으로 文學은 積極的인 社會參與를 한다는 點과 清
末부터의 啓蒙運動에 있어 인테리들이 文學을 가지고 愛國愛族의
先鋒에 나섰다는 點을 밝혔다.

金東旭：冕服考 (司會 高柄翹)

冕服(王服)制에는 中國에서 輸入된 中國式 制度와 우리나라 固有의
制度가 並存하였음을 考察하였다. (鄉土서울 第14·15號 參照).

全光鏞：唱歌·新體詩考 (司會 李萬甲)

開化期 初期詩歌의 外國詩歌와의 影響關係에 對하여 考察하였다.

2. 學術討論會

第一回東洋學심포지움：1962年 5月 8日~12日, 於 서울大學校 醫科大
學中講堂. 震壇學會와의 共同主權.

春香傳의 給宗的 檢討. (8日)

議長 李熙昇, 司會 鄭炳昱.

金東旭：異本으로 본 春香傳.

姜漢永：관소리로 본 春香傳.

張德順：作中人物을 通하여 본 春香傳.

車柱環：中國文學徒가 본 春香傳.

中國語의 語法과 教育. (9日)

議長 李相殷, 司會 張深鉸.

金學主：中國語의 特性과 教育에 關하여.

李漢祚：中國語의 詞에 對하여.

張基權：基本構造에 對한 몇가지 問題.

丁來東：中國語 教育에 대하여
十五世紀國語의 音韻體系. (10日)

議長 金允經, 司會 李基文.

綜合報告：李崇寧

討論參加者：南廣祐·李男德·鄭然榮·劉昌惇·金完鎭·許
雄·金亨奎

韓國近代化問題(其一). (11日)

議長 朴鍾鴻, 司會 李萬甲

李萬甲：「독립신문」에 나타난 價値觀念.

金成燾：韓國政黨의 前近代性.

李相信：韓國近代化의 基本性格.

崔文煥：土地制度와 韓國의 近代化.

韓國近代化問題(其二). (12日)

議長 李丙巖, 司會 全海宗.

閔錫泓：西洋의 近代化過程.

高柄翊：東洋近代化의 諸問題.

李普珩：初期韓美關係와 韓國의 近代化問題.

千寬宇：韓國近代化의 諸問題.

[贊助講演]

5月9日 下午 2~4時. 司會 李相信.

C. Martin Wilbur (美國 Columbia 大學 東亞研究所所長)：最近美國
에 있어서의 東部亞細亞研究.

※ 詳細한 內容은 震檀學報 第二十三輯에 附錄된 “第一回 東洋學심포지움
速記錄”을 參照.

3. 談話會

第一回：1961年7月14日，於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心理學科講議室.

講士：Luther Carrington Goodrich (Danforth Visiting Professor of Chinese
History,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Japan.)

題目：The Development of Printing in China and its Effects on the
Renaissance of the Sung(宋) Dynasty (960—1279).

中國에서 일찍부터 印刷術이 發達할 수 있었던 條件을 朱墨이 發明
된 西紀前 13世紀로 부터 拓本이 出現한 西紀 5·6世紀에 이르는

동안 살피고, 이러한 興件이 7世紀로 접어들면서 佛經에 對한 需要增大와 結合되어 9世紀에는 木版印刷가 出現하여 宋代의 物質文化, 政治的發展, 藝術 등 各 分野의 發達에 基礎가 되었음을 考察하였다.

第二回 : 1961年 10月 13日, 於 서울大學校 大講堂.

講士 : Vadime Elisseéff (佛蘭西 巴里의 Cernuschi 博物館長)

題目 : 東部亞細亞의 考古學的 研究.

Siberia 地方을 거쳐 亞細亞全域에 傳波된 西歐 舊石器文化가 亞細亞文化에 끼친바 影響과 그 發展을 광범하게 考察하였다.

第三回 : 1963年 3月 7日, 於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教授會議室.

講士 : Bruno Lewin(西獨 Münster 大學 助教授, 韓國 및 日本語·文學專攻)

題目 : 西獨에 있어서의 韓國研究.

西獨에서 韓國學을 研究, 講義하고 있는 大學 및 研究所와 이에 從事하는 學者 및 學生들을 紹介하고, 附隨하여 東獨에서의 韓國學 研究狀況도 言及하였다.

第四回 : 1963年 4月 26日, 於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教授會議室.

講士 : 賀光 中(馬來大學 教授, 中國史·文學 專攻)

題目 : 馬來에 있어서의 漢學研究.

馬來의 諸大學에서 馬來史學 및 語學과 東洋學을 연구하는 教授의 紹介(거의가 英國人과 中國人)와 現況을 說明하였다. 特히 馬來史學의 研究資料로써 일찍부터 馬來에 往來한 中國商人들의 記錄의 重要性을 強調하였다.

第五回 : 1963年 6月 21日, 於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教授會議室.

講士 : 李崇寧(本 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教授).

題目 : 美國의 韓國研究動向.

美國內 各 大學 및 研究所圖書館의 韓國關係圖書 收藏現況과 韓國學研究 教授 및 學生들의 動態를 紹介하고, 매우 不振狀態에 놓여 있는 韓國學의 時急한 發展이 要望됨을 言及하였다.

第六回 : 1963年 7月 10日, 於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教授會議室.

講士 : Edward Wagner (美國 Harvard 大學 副教授, 韓國史學專攻).

題目 : The Conditions of Korean Studies in the West.

美國內 諸大學에서의 韓國學研究 및 編纂事業에 關하여 言及하고,

韓國學의 發展을 爲하여 韓國學者들이 英文으로 그 業績을 發表하여 資料와 圖書·文獻의 入手를 보다 容易하게 하여 資料를 要望하였다.

第七回 : 1963年 7月 17日, 於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教授會議室.

講士 : Mark Mancall (美國 Harvard 大學 講師, 東洋史學 專攻)

題目 : Far Eastern Studies in Soviet Union.

演者가 1958—59年에 蘇聯에 滞在하면서 調査한 結果를 概述하였다. 먼저 17世紀 露國商人 및 使節團들의 中國에 關한 記錄과 1655年과 1676年の Baikov 使節團이 남긴 韓國에 關한 最初의 記錄에 대하여 言及하고, 다음 蘇聯이 東洋學研究의 中心을 워싱턴과 모스크바로 移動시킨 經過와 現在의 東洋學研究의 趨勢를 說하였다. 끝으로 Tichuminsky 의 中國現代史, Federenko 의 中國文學史 등의 卓越한 研究에 대하여 言及하였다.

第八回 : 1963年 8月 26日, 於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教授會議室.

講士 : Hubert Durt (벨기에 國立科學振興研究所 研究員)(通譯 : 李箕永 教授)

題目 : 「벨기에」에 있어서의 東洋學研究.

벨기에의 四個大學 (부랴트大學, 리에쥬大學, 강大學, 류벤大學)에서 연구되고 있는 東洋學의 部門과 이에 종사하는 學者들을 소개하고, India 以東의 東洋學이 佛敎研究에 關聯되어 연구하게 된 緣由와 이에서 派生된 特殊性을 說明하였다. 이러한 紹介와 說明에서 東洋學 研究의 現況이 아울러 言及되었다.

4. 共同研究

本 研究所는 于先 奎章閣圖書(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所藏) 自體의 研究와 이를 基礎로 하는 諸般研究를 共同研究의 對象으로 삼고 推進하여 왔으며 또 앞으로도 推進시킬 豫定이다. 其間의 業績과 現在 進行中인 研究의 概要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附記할 것은 下記할 (一)·(二)의 作業은 1962年 7月에 東亞文化研究委員會(The Seoul Research Council for East Asian Studies)로부터 研究助成金을 얻어 이룩한 것이고, (三)以下는 1963年 7月에 燕京學會(Harvard-Yenching Institute)로부터 研究助成金을 받아 1964年 6月 30日까지 完成할 豫定으로 現在

進行中에 있는 것이다.

(一) 奎章閣韓國本圖書의 基礎카드作成

이 基礎카드에는 分類, 圖書番號, 書名(漢·英文), 叢書名(漢·英文) 編·著者(漢·英文), 卷數, 冊數, 葉數, 版種, 體制, 刊行處, 刊行年月 日 등과 著者의 生卒年代 및 其他著書名이 낱낱히 記錄되어 있다. 總 18,723枚로 現在 本 研究所事務室에 備置되어 있다.

(二) 奎章閣韓國本重要圖書 200種의 解題

奎章閣韓國本圖書中 人文·社會科學 全分野에 걸친 200種의 重要圖書 를 擔當研究員 各自가 選定하여 比較的 詳細한 內容解說 및 批判과 書誌學的 紹介를 加한 것이다. 먼저 上記한 基礎카드와 同一한 카드에 解題圖書의 該當事項을 記入하고, 다음 編纂由來를 비롯한 內容解說과 批判(160字原稿紙 12枚內外), 目次(20種內外, 數多한 것은 末尾에 附錄으로), 著者生平(5枚內外), 參考(關係研究論著名 等等)의 順으로 記述되어 있다.

이 作業은 1963.7—1964.6 度研究計劃에 擴張·包含시켜 現在 500種을 目標로 進行되고 있으며 完成된 1962.7—1963.6 年度解題圖書 200種의 書名과 執筆者是 다음과 같다.

※ 金芳漢 : 捷解蒙語(4冊), 蒙語類解, 蒙語類解補篇, 捷解蒙語(1冊), 蒙語老乞大, 譯科榜目, 八歲兒, 梵字攷(No. 477), 梵字攷(No. 4207), 捷解新語, 重刊捷解新語, 改修捷解新語, 眞言集, 五大眞言, 重刊眞言集, 海東諸國記, 捷解新語文釋, 司譯院四學等齋正節目, 譯官上言謄錄, 同文類解, 隣語大方, 古今釋林, 重刊三譯總解, 小兒論.

※ 張基樞 : 韻會, 韻會玉篇(附. 部頭目錄), 老乞大, 重刊老乞大, 老乞大新釋, 老乞大諺解, 重刊老乞大諺解, 老乞大諺解, 四聲通解, 朴通事諺解, 經書正音, 御定杜陸千選, 杜詩批解, 杜律分韻, 杜律千選, 洪武正韻抄, 說文解字翼徵, 奎章全韻, 全韻玉篇, 華東正音通釋韻考, 華東叶音通釋, 華音啓蒙, 華音啓蒙諺解, 華經類抄, 五倫全備記諺解, 初學字訓增輯, 國漢會話, 語錄解, 譯語類解, 三韻聲彙, 字類註釋, 箕範衍義, 皇極衍義.

※ **全海宗**：同文彙考(正·續)，同文考略，同文考略續，清案，清去來案，啓下咨文冊，公文謄錄，統理衙門日記，外衙門日記，統稼日記，外衙門草記，國照會謄錄，各國約章合編，龍湖聞錄，嘉禔稟略，橘山文稿，雲養集，天津談草，疏割謄錄，阮堂集，國書啓下冊，書契啓下冊，倭使日記，倭使問答，日使文字，以政學齋日錄，修信使日記，啓下書契，政治日記，公車日錄，本朝紀事，銀台條例，政院故事。

※ **車柱環**：摛文院奉安摺錄，緝敬堂曝曬書目，集玉齋書目，集玉齋書目外書冊，集玉齋書籍目錄，春坊藏書總目，侍講院志，書香閣奉安總目，奉謨堂奉安御書總目，奎章總目，奉章閣書目，桂苑筆耕集，遙村先生遺稿，文昌集，梅湖集，破閑集，補閑集，秋江集，秋江冷話，圃隱集，稼翁稗說，益齋亂稿，稼亭集，牧隱集，陶隱集，冶隱集，冶隱續集，騎牛先生文集，春亭文集，湖陰雜稿，醒所覆瓶藁，四佳集，東溟詩集，麟齋遺稿，五山集，竹泉閒話。

※ **韓沾勛**：賦役實總，良役實總，湖南廳事例，嶺南廳事例，江原廳事例(附，海西廳·公剩色事例)，湖西大同事目，全南道大同事目，均役廳事目，均役事實，均役廳謄錄，宣惠廳定例，進上謄錄，進上別單謄錄，貢物定案，貢弊(備邊司貢弊釐正節目)，市弊(備邊司市弊釐正節目)，度支志，度支田賦考，度支定例，慶尙南道昌原郡家戶案，各郡貢價冊，正祖丙午所懷謄錄，朝鮮通商三關朝洋貿易成冊，赤城誌，貢謄定例，供上定例，戶口總數，穀總便攷，國穀總錄(穀簿合錄)，全羅道三漕倉漕需會計成冊，北學議，慎獨齋遺稿，潛谷遺稿，六谷遺稿，嶽商廳節目，漕弊釐正事目。

※ **許 雄**：諺解胎產集要，諺解藥證治方，牧牛子修心訣，禪家龜鑑，諺解繪音，繪音(御製表忠，諭咸鏡道大小民人等)，御製訓音諺解，阿彌陀經諺解，馬經諺解，譯語類解，御製常訓諺解，禪宗永嘉集諺解，正俗諺解，增修無冤錄諺解，龍飛御天歌，訓蒙字會，杜詩諺解，女四書諺解，童蒙先習諺解，內訓，孝經諺解，家永諺解，千字文諺釋，東國新續三綱行實，戒酒偷音，驚民編，字恤典則，三綱行實圖，續三綱行實圖，東國新續三綱行實圖，二倫行實圖，五倫行實圖，類會，十九史略諺解，斥邪繪音。

(三) 奎章閣未整理圖書의 基礎調査・整理

擔當責任研究員：所長(臨時)

A. 資料：現在 서울 大學校中央圖書館內에 積置・放任되어 研究에 利用하지 못하고 있는 奎章閣圖書 約 5,000冊을 調査・整理한다. 本圖書는 李朝末葉의 貴重한 史料들이다.

- B. 目的：本圖書의 內容을 完全히 把握하며 將次 製本, 利用할 수 있도록 基礎作業을 하는데 있다.
- C. 方法：먼저 書名, 編著者, 刊行處, 刊行年月日, 冊數, 卷數, 張數 등을 카드에 調査·記入하고 內容目次를 記錄한다. 다음 이를 基礎로 하여 分類카드를 作成·整理한다.
- D. 成果：每種에 대하여 간단한 解題를 作成, 紹介한다.

(四) 奎章閣圖書를 中心으로 한 李朝末期(1850—1910) 對外關係資料에 대한 基礎的 研究

擔當責任研究員：全海宗

- A. 資料：① 淸·日·美案등 李朝末外案 約 20 種. ② 統理衙門日記 등 對外關係官撰日記 約 10 種. ③ 同文彙考, 啓下咨文冊등 對外關係官撰資料 約 20 種. ④ 燕行錄類등 對外關係紀行文·見聞錄類 約 30 種. ⑤ 雲養集, 嘉梧稿略등 外交關係人物의 文集 및 特殊資料 約 20 種. ⑥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등 李朝末의 基本史料 및 이에 準하는 資料 約 10 種. ⑦ 官報, 新聞등 定期刊行物 約 10 種. ⑧ 其他 資料 約 20 種.
- B. 目的 및 方法：① 李朝末 外交擔當機關의 推移와 外交文書의 作成·傳達·編纂經緯등을 밝히는 基本研究. ② 對外關係資料의 目錄 및 簡單한 解題의 作成. ③ 摘記가 可能한 資料의 內容目次 整理. ④ 外交文書의 文例에 대한 註釋.
- C. 成果：200 字原稿紙 約 1000 枚로 整理·發表할 것이다.

(五) 奎章閣圖書에 取藏된 歷代文集의 基礎研究

擔當責任研究員：車柱環

- A. 資料：現在 奎章閣圖書에 收藏된 歷代文集 全部(約 1,400 種). 餘裕가 있을 때에는 他機關에 있는 文集도 對象으로, 또는 參考로 한다.
- B. 目的：關係研究者들로 하여금 韓國의 歷代文集을 諸角度에서 具體的으로 把握하여 問題를 探索·發見하는 線索을 얻게하고, 必要할 때

에는 그것을 가장 效率的으로 簡便直截하게 參考乃至 研究하게 하는데 要求되는 諸般의 基礎的 問題를 整理·研究한다.

- C. 方法 및 豫想成果: ① 韓國歷代文集의 目錄·索引作成……目錄은 著者의 生卒年代에 따라 排列하고 各 文集마다 保存機關, 圖書番號, 簡單한 書誌的 紹介, 著者紹介등을 提示한다. 索引은 書名의 字劃과 가나다 順으로, 또 著者名의 字劃과 號譜로써 한다. ② 重要文集의 詳細한 內容目次 作成……諸分野의 專門家의 眼光에 依한 重要文集를 選定하여 作成한다. ③ 文集에 關한 考察……文集의 概念·限界·名稱·保存狀況·編輯·出刊등등. ④ 著者에 關한 考察……著者의 地方別分布·黨派別分布·官職등과 女流 및 僧侶. ⑤ 文集의 構成에 대한 考察……中國文集과의 比較와 韓國文集의 特色, 構成에 따른 分類와 詩話·漫錄등에 關한 考察. ⑥ 文類의 考察……韓國文集에 나타난 文類와 時代別·著者別로 본 文類取擇의 傾向·變遷, 文類에 따른 文學的 價値와 著者의 著作意識. ⑦ 文集의 史料的 價値. ⑧ 附錄……保存된 歷代文集一覽表, 未見文集一覽表. ⑨ 索引.

(六) 奎章閣韓國本重要圖書 500 種의 解題

昨年度 研究에 繼續되는 作業이다. 前記한 (二)의 方法과 同一한 方法으로 圖書를 選定·解題할 것이다.

이 研究에 參加한 研究員은 다음의 11 人이다.

金芳漢, 金庠基, 朴鐘鴻, 朴俊圭, 柳洪烈, 李基文, 張基權, 張德順, 全光鏞, 鄭炳昱, 許雄.

(七) 奎章閣韓國本圖書의 目錄·索引作成

擔當責任者: 서울大學校附屬 圖書館長.(本 作業은 本研究所에서 中央圖書館에 委屬한 것임).

- A. 韓國本 9,810 部(41,117 冊)를 全部 本 作業의 對象으로 한다.
B. 韓國本圖書의 書誌的 整備와 閱覽 및 檢索의 便益을 目的으로 한다.

C. 現品을 調査하고 如下한 內容을 目錄 카드(二部式)에 記入한 다음 書名別·人名別·內容別 索引을 作成한다.

書名調査, 主題決定 및 內容目次, 圖書番號, 著者名調査, 卷次, 刊年, 藏書印 및 藏書記, 版本調査, 版式調査(匡廓·魚尾·黑口 等), 張數調査, 其他必要的 註記.

D. 本 作業이 完成되면 製作한 各種 카드를 中央圖書館에 備置·利用케하는 同時에 印刷·出版하여 學界에 提供한다.

彙 報

[受贈圖書]

國 內

※ 亞細亞女性研究 第一號, 1962年 12月, 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近世朝鮮의 醫女制度에 關한 研究…… 金斗鍾.

○歐美人の 韓國女性觀……洪以燮.

○李朝時代의 衣料生産에 關한 考察……李文垣.

○家族法에 있어서의 亞細亞女性의 地位……金斗鉉.

○西太后의 清朝末期의 政情……秋憲樹.

○韓國女性의 月經에 關한 調查研究……金周成.

○契의 諸學說의 吟味와 그 團體概念에 關한 史的研究……金三守.

※ 東方學志 第六輯, 1963年 6月, 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月印釋譜 第二十三殘卷……閔泳珪.

○국어의 發音에 關한 연구…… 朴昌海.

○道德經에 나타난 「老子」思考型의 研究…… 韓泰東.

○韓國古代史研究의 回顧와 展望…… 金哲堧.

○育英公院의 設置와 그 變遷에 對하여……李光麟.

○「느저르랴다」攷……劉昌惇.

○萬憤歌 研究……李家源.

○杜谷時調研究——壬亂前의 資料——……金東旭.

○僧人號牌考……李鍾英.

○丁茶山의 經學思想研究……李乙浩.

○李朝禮學의 形成過程……黃元九.